

한양대 무용학과 커리큘럼

한양대 무용학과에서는 신체의 테크닉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기과목, 무용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이론과목, 무용을 토대로 무용과 관련한 여러 장르 과목의 커리큘럼으로 배우게 된다. 또한 전공뿐만이 아닌 부전공 수업도 기초 필수 과목으로 자신의 전공뿐만 아니라 부전공 수업을 같이 배우으로써 신체 움직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는 현 무용계의 추세가 한 가지 장르를 넘어서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 무용수 양성에 적합한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는 다양한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한 학년에 10%의 학생에게 부여되는 교사 자격증은 교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메리트가 된다. 그리고 무용교육의 장래에 보다 빠르게 다가갈 수 있으며 성실히 임함에 따라 좋은 성적과 교사자격증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16~19년도 교육과정

		1학기	2학기
1 학년	이론	춤 음악 예술의 이해	한국 춤의 역사 춤 교육의 이론과 실제 웹빙 무용 프로그램개발 무용수의 건강과 영양 무용 즉흥
	실기	무용 전공실기 1 전공 레파토리 1	무용 전공실기 2 전공 레파토리 2
	교양 필수	커리어개발 1	
2 학년	이론	춤 미디어 무용 동작 기보법 무용 테크놀로지 시와 무용 무용 개론	무용진로 특강 아동 무용교육 개발연구 무용심리 동작분석 및 표현
	실기	무용 전공실기 3 전공 레파토리 3	무용 전공실기 4 전공 레파토리 4
3 학년	이론	춤 공연 연출 무용 작품해설 사회무용교육방법론 무용 인류학 스테이지 디자인 작품 분석	춤 프로젝트 연구 춤 이미지 서양 무용사 국제 발레 교과과정 무용 필라테스 창작론
	실기	무용 전공실기 5 전공 레파토리 5	무용 전공실기 6 전공 레파토리 6
	교양 필수		커리어개발 2
4 학년	이론	춤 공연 마케팅 전략연구 무용 교수 워크샵 무용 측정 평가 인턴십 과정	커뮤니티 댄스 실기 워크샵 무용요법 무용공연 프로젝트
	실기	무용 전공실기 7 전공 레파토리 7	무용 전공실기 8 전공 레파토리 8

-최은영 기자

무용 진로 탐구

과거에는 무용학과를 졸업하면 대부분 무용수, 안무가 등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을 선호했고 직업전환에 있어 무용분장, 의상, 공연기획 등에서 그쳤다. 하지만 현재, 무용이 다른 분야들과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무용수의 직업전환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단체 전문무용수 지원센터에서는 무용전공생들이 특성을 살려 다방면의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을 개발하고 있다. 무용 재활전문 트레이너, 공연기획자, 공연기술자, 무용평론가 등의 직종을 개발 및 지원 중이며, 더 많

은 직종 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에 따라 무용전공생들은 영상예술, 무용재활, 예술경영, 무용치료, 무용 테크놀로지, 필라테스 등 더 넓은 폭에서 진로를 선택 할 수 있게 되었다. -김민주, 이수경 기자

진로	
과거	실기 - 무용수, 안무가 그 외 · 무용분장, 의상, 공연기획
현재	무용수, 안무가, 무용분장, 의상, 공연기획 + 무용수재활트레이너, 평론가, 예술경영, 무용치료, 무용테크놀로지, 필라테스 등

무용계의 동향

최근 무용계는 타 예술분야 또는 첨단기술과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하고 있다. 올 해 12월 8일-9일 이틀간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공연된 '더 토폭(The Topping)'은 배우, 영화, 연색과 한국무용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총 3개의 옴니버스식 창작 작품이다.

서울시 무용단 무용수 박수정은 한국무용을 전공한 영화배우 한예리와 콜라보레이션으로 '지나간 여인에게'를 공연하였고, 무용수 강환규는 영화 '올드보이'에서 영감

을 기반으로 한 창작 작품을 선보였다. 무용수 이진영은 한국무용과 연색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설정을 내놓았다. 현재 무용계의 추세를 보면 첨단기술을 활용한 융합 퍼포먼스·영상 제작을 시도한 작품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다. 그 사례로는 제19회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스페인 특집 공연에서 라룸베 무용단의 '고래, 거인들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의 특징은 3D 애니메이션과 현대무용을 접목한 어린이를 위한 무용극으로 3D 안경을 착용하고 관람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작품으로는 '아트 무브먼트(Art of Movement)'이다. 이 작품은 3D 댄

스 공연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영국의 대표 아티스트 빌리 코위가 안무한 작품이며, 무용수가 3D 애니메이션의 무용수와 같이 무용을 하며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게 되는 것이 작품의 특징이다.

이 밖에도 빌리 코위 안무자의 작품 중 '다크레인(Dark Rain)', '탱고 오브 솔리튜드(Tango of Solitude)' 등이 있다. 이렇듯 현재 무용계는 타 예술 분야인 연극, 영화, 또는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추세이며 이 흐름에 따라 융합을 통해 무용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 -신예희 기자

ARTS & TECHNOLOGY

2016년 9월 20일 저녁7시 한양대학교 FTC(퓨전테크놀로지센터)에서 A&Tech(아트테크놀로지) 개관식에 Digital Performance "The New: Light in the Darkness" 주제로 공연되었다.

A&Tech(아트테크놀로지)학과는 우리 대학의 강점인 공학과 예술,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심리학 분야까지, 이 모두를 융합해 21세



기 미래 산업의 퍼스트무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올해 3월에 개설된 학과이다.

이날 공연된 "The New: Light in the Darkness"는 디지털 퍼포먼스로 음악과 무용수의 안무에 맞는 영상이 대형스크린에 표현되어졌다. 유기적 요소와 기하학적 요소가 조화를 이뤄 융합의 새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소연

좌담

앞으로 HJK신문의 발전방향

사회자: HKJ가 어느덧 16호를 맞이했다. 그 간 발행된 신문들을 살펴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HKJ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의 행보와 더불어 앞으로의 HKJ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박진영: 학교 교내신문이지만 교내 독자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독자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해야한다. SNS를 통해 HKJ를 다양하게 알렸으면 한다.

전미라: 앞의 의견에 동의한다. 홍보에 있어 부족한 점이 느껴졌던 것이 HKJ의 SNS 활용이 미흡한 것이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활용한다면 HKJ가 더욱 활성화되고 다양한 예술인들과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정임: SNS를 통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정보제공의 접근성과 무용분야 정보 외에 다양한 테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신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진솔: 교내 학교 학생들이 HKJ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신문에 들어갈 소재들은 무용과 소식뿐 아니라 타 전공 학생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사가 있다면 관심 갖는 구독자가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하라: 교내 홍보를 위해 학생들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신문을 배포하는 방법 등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재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기사 내용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쓰는 기사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주희: 기사 마감 기한, 혹은 회의 시간 등에 있어 HKJ 기자로서 책임감

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미흡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박아림: 지금까지의 신문은 한국무용 전공 학생기자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는데, 현대무용·발레 전공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만들면 좀 더 새로운 신문이 될 것 같다.

박태운: 체계화되고 정리된 레이아웃이 구축되어야 독자와 만드는 이 모두 편한 신문이 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정기적인 독자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회의가 필요할 것 같다.

최은영: 신입기자로 활동할 때 기사 작성 시 글의 작성법 혹은 문맥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다. 정기적으로 기사 작성 특강을 진행하여 피드백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정혜윤: 무용에 관한 기사뿐만 아니라 무용과 예술의 융합을 함께하는 신

문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예술인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서 꼭 참고하는 신문이자 정보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예희: 한양대학교 무용학과에서 발행되어지는 신문이지만, 다른 타 학교의 현황과 국내·외 무용단의 현황을 취재하여 기사화시키면 더 흥미로울 것 같다.

조은비: HKJ는 재학생 신문으로서의 의미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HKJ만이 품길 수 있는 향기와 색을 잃지 않고 발전해나가는 신문이 되었으면 한다.

사회자: 정기적인 기사 작성 특강을 진행하고 단순히 무용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과 융합, 그리고 국내·외 무용계 현황 취재 관련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HKJ만의 향기와 색을 잃지 않고 발전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지금까지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HKJ가 되길 바라며 2016 HKJ 좌담을 마친다.